

날짜 2022-06-26(D1) 본문 창4:1-8, AC.388-369
번호 2313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32, '만유의 주재'

‘가인과 아벨’

시작 주기도
찬송 찬32, ‘만유의 주재’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창4:1-8, AC.388-369
찬송 찬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성찬 다음 주일(7/3)은 7월 첫 주, 월초 성찬 있습니다.
- ② 지방회 7월 9일(토) 오후 3시 대전침신 아가페홀, 한사랑교회 서승우 전도사 목사 안수식 직후

헌금기도, 축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¹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²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³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⁴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⁵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⁶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⁷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⁸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창4:1-8)

말씀을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태고교회의 두 자녀 신앙과 체어리티를 각각 가인과 아벨이라 한 것과, 그러나 가인은 사랑과 신앙을 분리한 이단이라는 것, 오직 체어리티의 선으로 주님 예배한 아벨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체어리티를 외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들었습니다.

오, 주님, 일상 가운데 수많은 체어리티 실천의 기회들을 애써 외면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후 한걸음한걸음 체어리티를 실천하는 삶 살도록 주님 의지하며 걸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